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

T. Sasao, 1897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삼상 7:12)

크신 은혜: 8.7.8.7.D.
박재훈, 1967

보통으로

1. 지 금 까 지 지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헤 라
2. 몸 도 맘 도 연 약 하 나 새 힘 받 아 살 았 네
3. 주 님 다 시 뵈 을 날 이 날 로 날 로 다 가 와

한 이 없 는 주 의 사 랑 어 쥬 이 루 말 하 라
물 붓 거 든 이 짐 주 께 말 겨 벉 을 날 도 멀 하 다
무 겨 운 짐 주 께 말 겨 벉 을 날 도 멀 하 다

자 나 깨 나 주 의 손 이 항 상 살 펴 주 시 고
사 랑 없 는 거 리 에 나 험 한 산 길 헤 땀 때
나 를 위 해 예 비 하 신 고 향 집 에 돌 아 가

모 든 일 을 주 안 에 서 형 통 하 게 하 시 네
주 의 손 을 주 께 안 에 서 영 찬 송 원 토 록 하 리 라
아 버 지 의 품 안 에 서 영 찬 송 원 토 록 하 리 라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신앙고백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같이

기 도 가족 중에서 다같이

말씀나눔 시편 121편 (구약 897면) 인도자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가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
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노래"

명절 설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볼 때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참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0 ~ 134편까지의 서두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매년 명절이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121편 본문말씀도 명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고백을 통해 오늘 날 누구나 쉽게 노래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과 인맥 등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재물과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환란을 이겨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도 평생의 어려움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노래합니다. 또한 올 한 해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노래하는 기쁨의 인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도움이자 보호자, 지키시는 분이심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신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올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즐겁고 복된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로 노래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2. 올 해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우리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가정 되게 하소서

38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C. D. Martin, 1904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시 91:4)

GOD CARE: 8.6.8.6.REF.
W. S. Martin, 1904

보통으로

1. 너 근심 걱정 정 말 아 주 너를 지 키 리
2. 어 려 워 낙 정 심 될 때 에 주 너를 지 키 리
3. 너 쓸 것 미 심 리 아 시 고 주 너를 지 키 리
4. 어 려 운 시 험 당 해 도 주 너를 지 키 리

주 날 개 밀 에 거 하 라 주 너를 지 키 리
위 험 한 일 을 당 할 때 주 너를 지 키 리
구 구 하 는 것 주 시 며 주 너를 지 키 리
주 의 품 에 거 하 라 주 너를 지 키 리

후렴

주 너를 지 키 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 키 리 늘 지켜 주 시 리 (너를) 아 멘